

시중금리 하락 ... '돈맥경화' 풀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확대로 시중자금의 경색현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요지부동이었었던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신용 위험이 있는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앞다퉀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다.

정부 유동성 공급 확대 ... 회사채 등 금리 인하 CD 금리도 큰 폭 하락 예·대출금리 하향곡선

◇회사채·은행채 금리 하락=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과거적으로 1.0% 포인트 내리면서 시중금리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중금리, 특히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3년 만기 은행채(신용등급 AAA) 금리는 지난 11일 7.02%에서 12일 6.70%로 0.32%포인트나 빠지며 지난 9월 17일 6.79% 이후 3개월 만에 6%대로 떨어졌다.

3개월 만기의 은행채 금리도 같은 기간 4.65%에서 4.32%로 0.33%포인트 내려가 연중 최저 수준을 보였다. 3년 만기 회사채(AA-)금리는 이 기간 8.62%에서 8.47%로 0.15%포인트 내렸으며 91일 물 기업어음(CP) 금리도 7.16%에서 7.08%로 떨어졌다. ◇예금·대출금리 하향곡선=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은행의 대출금리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91일 물 CD 금리는 10월24일 6.18%였지만 이달 12일에는 4.75%까지 급락했다. 이에 따라 CD 금리와 연동하는 연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연 5.51~7.01%로 지난주보다 0.70%포인트 떨어지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정금리도 연 7.78~9.28%로 0.74%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초 우리은행의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금리는 5.88~7.18%로 지난 주초보다 0.47%포인트 급락했으며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금리는 8.16~9.26%로 0.51%포인트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5.92~11.25%로 지난 주초보다 0.47%포인트 하락하는 등 신용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있다. 외환은행의 리드스폰 금리는 6.98~8.78%로 0.70%포인트 하락했다. 그동안 시중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예금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7%대는 자취를 이미 감췄고 6%대도 기대하기 어려워 전망이다. ◇한은 유동성 공급·채권펀드 가동=시중금리는 한은의 유동성 공급과 채권시장 안정펀드 출범에 힘입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단기 자금 시장의 온기가 크레디트물 시장까지 충분히 퍼지도록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 주 장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6조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대상 증권은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를 포함한 은행채 등 크레디트물 위주로 편성된다. 특히 6조5천억 원 가운데 4조5천억 원은 한은의 RP거래 규정상 최장기물인 91일 물로 공급된다. 정부가 총 10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일단 5조 원 규모로 17일부터 은행채와 회사채, 여전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을 사들인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한은의 유동성 지원을 받아 자금을 대는 채권펀드는 3년 만기로 투자한다. 통합펀드운용사는 최대 출자기관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은자산운용이 맡고 8개 자산운용사가 하위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시장금리 하향 안정 미지수'=전문가들은 그러나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삼성증권 최 파트장은 "앞으로 계속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진행중인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희망 동네 나눔 장터' 광주신세계와 광주 서구청, 어린이재단은 15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희망 동네 나눔 장터'를 열고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층 200여명을 초청, 무료 자장면 급식과 의료·이발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위경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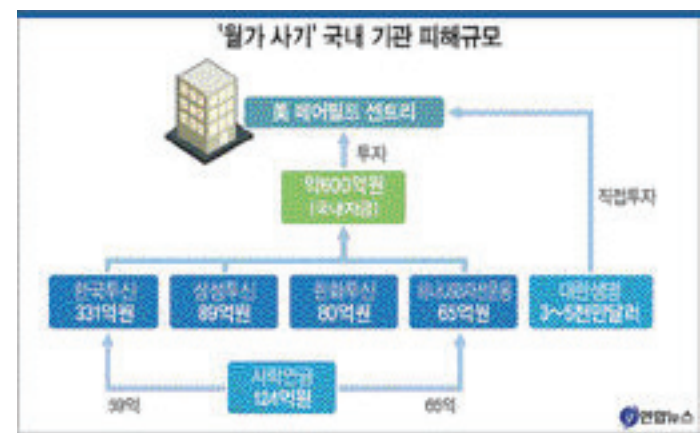
수입물가 6.6% ↓ ... 10년來 최대

11월 중 원자재가 급락 여파

환율 상승에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출입 물가의 상승세가 급속히 둔화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수입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원자재 수입물가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최대폭 하락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원화 기준으로 11월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6.6%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원자재와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등 수입품의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전월 대비 수입물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 8월(-4.4%) 이후 3개월 만에 하락폭은 1998년 12월의 -7.1% 이후로 가장 크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11월에 32.0% 오르면서 10월의 47.1%에 비해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했다.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 기준으로 같은 금액을 수입하더라도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가격이 오른다. 반면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값의 안정은 수입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즉 환율 상승에도 수입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환율 요인을 상쇄했다는 의미다.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10월 1,327원에서 11월 1,401원으로 올랐지만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67.7달러에서 49.9달러로 급락했다. 상대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본재는 전월보다 6.4% 올랐으나 원자재는 15.2%나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 원자재 수입물가의 하락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로 최대폭이다. 환율 요인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으로 11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1.0%, 작년 동월 대비 13.1% 각각 떨어지면서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품의 가격을 보여주는 수출물가도 원화 기준으로 전월보다 3.3% 하락했다. 수출물가는 8월 -1.4% 감소세에서 9월 4.6%로 상승세로 돌아선 뒤 10월에는 7.7%로 상승폭을 더 늘렸다. 농림수산물품은 전월 대비 8.6%, 공산품은 3.3% 각각 하락했다. 작년 동기 대비로도 10월 38.6%에서 11월 31.5%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연합뉴스

美 월가 다단계 사기 피해 국내 금융기관 1천억 넘어



국내 일부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미국 월가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페어필드 센터리' 등에 투자해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사학연금 등 일부 연기금이 12월 기준으로 '페어필드 센터리'나 '프리미오 셀렉트' 등의 헤지펀드에 총 9천510만달러(약 1천307억원 정도)를 각·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로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사학연금과 모 공제회 등 2개 연기금과 3개 보험사 등 4개 금융기관은 국내 자산운용사에 설정한 사모펀드를 통해 해당 헤지펀드들에 총 4천510만달러(약 600억원 정도) 가량을 간접 투자했으며, 대한생명 5천만달러를 직접 투자했다. 펀드의 간접투자 규모를 운용사별로 보면 ▲한국투자 2천190만달러 ▲삼성투신 630만달러 ▲한화투신 600만달러 ▲하나UBS자산운용 680만달러 ▲알리안츠자산운용 210만달러 ▲산은자산운용 200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학연금은 한국투자신과 하나UBS자산운용에 설정한 사모펀드 등을 통해 총 124억원의 자금을 '페어필드 센터리'에 투자했다. 그러나 국내은행과 증권사,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이번 사건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 /연합뉴스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 제조기술 개발 성공

광주과학기술원 이택희 교수팀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택희 교수(사진)팀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도 전기적 특성을 갖는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15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이 교수팀은 산화아연(ZnO)과 산화인듐(In2O3) 두 종류의 나노선(10억분의 1미터의 극미세선)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플라스틱 기판 위에 제작한 뒤 이 나노선 전자 소자가 휘어진 상황에서도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규명해 재료공학분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 최근호에 게재했다. 이 교수팀은 '플라스틱 기판 위의 산화아연 나노선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작과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플라스틱 기판 위의 두 나노전자 소자가 휘어진 상태에서 보이는 전기적 특성 변화를 분석했다. 이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구부러지거나 휘어진 경우에도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전자소자와 나노와이어 소자 응용기술의 융합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자기술을 제조회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광주과학기술원 측은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백열전구 퇴출

저효율에너지 2013년까지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가 2013년까지 퇴출된다. 가전업체별로 에너지효율 총량을 제한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에어건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업체는 에어건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고효율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저효율 제품의 판매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를 열어 2012년까지 국가에너지 효율을 11.3% 개선하는 내용의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을 확정했다. 4차 계획에서는 빛 에너지가 5%에 불과하고 95%를 열로 발산하는 백열전구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2013년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호재 터진 증시

4대강 정비 예산 편성 등 코스피 지수 54.37P 상승

증시가 미국 정부의 '빅3' 지원방침과 4대강 개발 호재 등에 힘입어 급등했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37포인트(4.93%) 오른 1,158.19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5.08포인트(4.71%) 오른 335.15로 장을 마쳤다. 미 상원이 '빅3' 구제법안을 부결했다는 소식에 12일 50포인트 급락했던 코스피지수는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락폭을 곧바로 만회했다. 또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편성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건설주가 급등했으며 기계, 운수장비 등의 경기민감주와 은행, 보험 등의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다.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반전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5.50원 하락한 1,36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교포들 '바이코리아' 열풍

10월중 韓銀 '송금이전수입' 12억달러 사상 최대

국내 부동산값 하락 틈타 '알짜물건' 싸게 사들여 교포들을 중심으로 '바이코리아'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는 외국인과 달리, 교포들은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부동산값 등이 급락하는 '기회'를 활용해 국내 자산을 싸게 사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포들이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 규모에 달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 '송금이전수입'은 12억 8천만 달러로 전월(6억 1천만 달러)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0년 이후로 최대 규모다. 10월 평균 원·달러 환율(1,327원)을 적용하면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송금이전수입은 해외 교포 등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으로, 외환위기로 교포의 국내송금 바람이 불면서 1997년 11월 2억 7천만 달러에서 12월 8억 6천만 달러로 3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이후로는 줄곧 매월 3억~5억 달러 규모를 유지해왔다. 반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에서 해외로의 송금은 급감했다. 내국인이 해외 거주자에게 보내는 '송금이전지급'은 10월 3억 4천만 달러로 전월(5억 1천만 달러)에 비해 30% 이상 급감하면서 2001년



정부, 내년 성장률 2%대 하향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 내외에서 2%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발표할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경기가 급락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급속히 하향조정되면서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내년 신규 일자리 예상치를 5만명으로, 성장수지는 200억달러 내의 흑자, 물가는 3% 내외를 놓고 막판 계수 조정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대일하이텍	(목포/화성)배출, 매장, 영업관리 담당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17	061-244-2757
에스스틸	경리, 회계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2/18	062-336-9666
일유비에스	[주5일]사각디자인, 사무경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18	062-603-4603
한글리컴퓨터	[한컴CO컴퓨터교실] 컴퓨터 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9	062-373-5221
포인텍	경리/회계 여직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20	062-959-5454
화인코리아	해외(중국, 생산)공무-전기, 연구개발, 총무(비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1-330-4523
명신대학교	2009년 명신대학교 경찰/체육학과 전임강사 교수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1-742-2351
이안정	이안정/회계/정규직 사원(인강사, 판매, 관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22	062-528-3223
오에이전자	총무사무원, 홈페이지 수정, 피어포인트작성/회계관련업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22	062-971-4800
은병원	외래 간호사, 간호조무사	대졸/경력1년	1400~1600	12/22	062-269-1556
루이까프즈	롯데백화점 2층 루이까프즈브랜드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3	062-221-1143
주연컴퓨터	주연테크컴퓨터 출장서비스 기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4	062-675-0791
성우하이텍	시험설비 설계, 자동제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24	062-956-814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